GLOBAL MARKET REVIEW
FIRST LIGHT

2025. 10.13.

글로벌주식팀

서정훈, CFA Senior Analyst
junghun1212.seo@samsung.com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 500	6,552.51pt	-2.71%
DOW	45,479.60pt	-1.90%
NASDAQ	22,204.43pt	-3.56%
STOXX 600	564.16pt	-1.25%
美 국채 10년물	4.03%	-10.62bp
美 국채 2년물	3.50%	-9.12bp
달러 인덱스	98.98pt	-0.56%
국제유가 (WTI)	58.90$	-4.24%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美 증시 급락 배경 점검과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 11월 1일부터 대중국 관세 100% 예고

10월말 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 여부 불투명해진 상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미중 간 무역분쟁 우려가 다시금 불거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S&P500 지수는 장 초반만 해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중국 무역 정책을 비판하자 증시는 급락세로 돌아섰고, 결국 지난 4월 말 이후 처음으로 2% 넘게 내렸습니다. 그간 빅테크의 선전에 힘입어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나스닥은 이날 3.56%의 낙폭을 기록했으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6.32%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해당 소식을 접한 이후 변동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금일 국내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또한 광범위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글로벌 증시의 기류가 급변하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간 투자자들이 간과해 오던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다시금 높아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요 무역 상대국과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조율하는 과정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가격에 반영된 낙관적 기류와 달리 아직 구체적인 진전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 경제적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과 표면적인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다시금 키웠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휴 기간 동안 중국 측은 미국 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희토류 수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는 한편, 11월 1일부터 모든 중국 수입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했습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연초부터 중국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달리 중국 측은 현재까지 정상회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둘째, 무역분쟁 재점화라는 돌발 악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뉴욕 증시는 이미 뚜렷한 단기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S&P500 지수의 경우 최근 빅테크의 선전이 시장을 이끌면서 12개월 선행 P/E 멀티플은 23배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과거 닷컴 버블과 팬데믹 랠리 당시에 버금가는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최근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빅테크들이 강력한 AI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이에 투자자들은 AI 인프라 관련 주식을 매집하는 것으로 대응했고, 관련 주식들은 국내 연휴 기간 동안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경우 지난 9월 한 달간 12%가 넘게 올랐으며, 10월에도 10%에 가까운 오름세를 월 초반에 이미 선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지수는 기술적 지표 분석상 전례가 드문 수준의 과열 신호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11월 1일 대중 관세 100% 부과일까지 여러 이벤트가 산재해 있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미 10월 1일부터 시작된 미국 정부의 셧다운은 과거 평균 업무 중단 기간(8일)을 넘어서며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종 경제지표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10월 29일에는 FOMC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어 불확실성을 더합니다. 자칫 연준 위원들은 별다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더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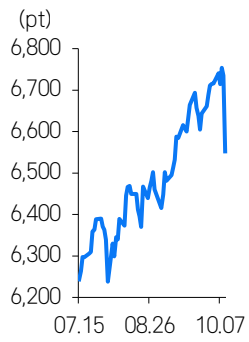
불어 증시의 과열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미국 기업들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됩니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상황인 만큼, 실적 결과에 대해 보수적인 해석과 반응이 주를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미중 무역갈등은 예정된 이벤트의 복잡성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상승 피로도가 높던 뉴욕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겪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중 무역갈등 재점화가 아직 초기 국면이고, 향후 여러 이벤트 확인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면 시장의 조속한 반등을 기대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인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간 견조했던 AI 반도체 업종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금주 실적을 공개할 예정인 글로벌 최대 파운드리 업체 TSMC와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이 내놓는 메시지에도 투자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섣부른 저가 매수에 나서기보다는 시일을 두고 신중한 접근을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시장의 중장기 성장 추세 자체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현 시장의 핵심 동력은 AI 산업의 성장입니다. 이는 거시 경제 변수나 무역 분쟁과 같은 정치적 소음과는 구별되는 '구조적 변화'에 해당합니다. 지난 4월 미중 갈등이 심화하던 국면에서도 AI 관련 기업들의 견고한 펀더멘털은 재차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관련 주식들이 시장의 우려를 딛고 반등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이익 성장세가 담보된 우량 기술주를 현재 시점에서 투매하는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 또한 이익 가시성이 여전히 높다는 점도 분명 사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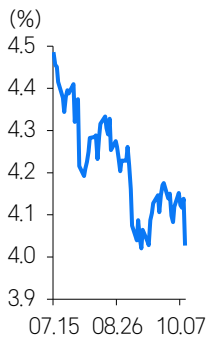
종합하면 주식시장의 단기 부침을 염두에 두되, AI가 주도하는 중장기 성장 추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시각을 견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정부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점, 금융시장 변동성에 미국 정부도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 등은 무역 관련 소음의 장기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입니다.

S&P500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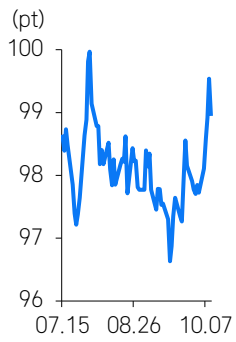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美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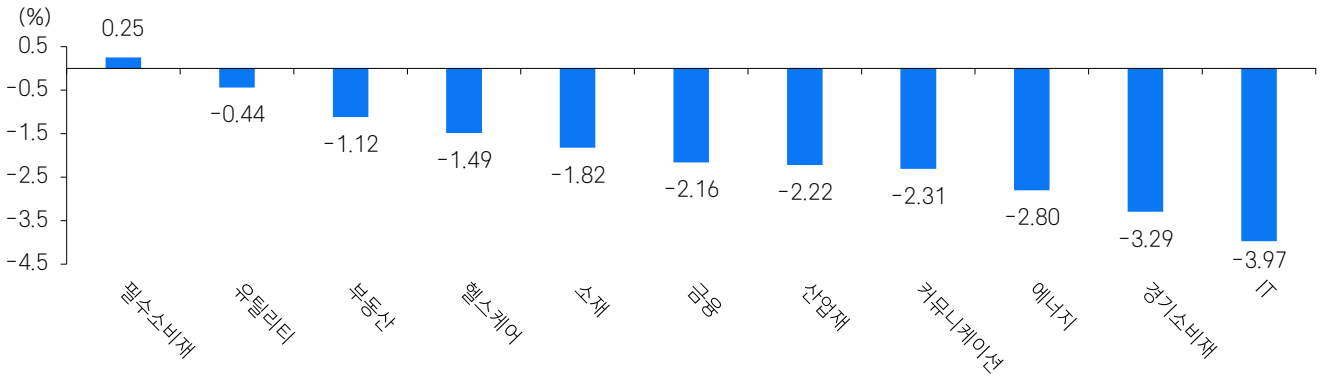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펩시코	3.7	필수소비재
2	필립 모리스	2.3	필수소비재
3	서던 컴퍼니	2.2	유틸리티
4	듀크 에너지	1.9	유틸리티
5	CVS 헬스	1.5	건강관리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페이팔 홀딩스	-7.8	금융
2	AMD	-7.7	정보기술
3	퀄컴	-7.3	정보기술
4	Dow Inc	-6.5	소재
5	브로드컴	-5.9	정보기술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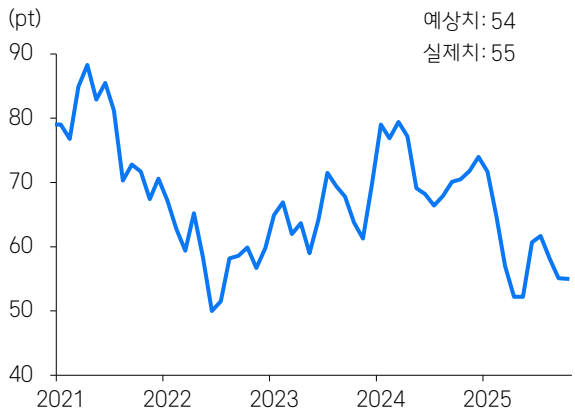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3.25	-3.73	2.6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32	-5.41	6.76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0.67	-0.51	2.15
MSCI EM ETF	-3.69	-4.22	-0.61
NDF 원화 환율	0.86	-1.86	-3.23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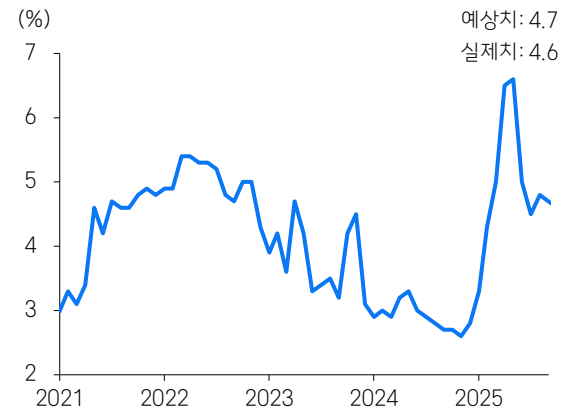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미국 10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10월 미시간대학교 1년 기대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